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패싯 기반 디렉토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

Improving the Access Service of National Designated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cusing on Facet Directory Service

정 미 옥 (Mi Ok Jung)**

최 상 희 (Sanghee Choi)***

초 록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민간의 기록물을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고 기록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국가기록원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관한 정보가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 이하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 단일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디렉토리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ABSTRACT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is designed to protect valuable civilian records from loss or damage. It also intends that government administrates important civilian records to raise public concerns civilian records and to foster archival culture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s of service for the designated record through the web page of National Archive of Kore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of designated records is dispersed in two web pages by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an introductory web page of every collection in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and a web page of designated record service. Second, the web page of designated record service provides information of designated records only at collection level, so it is not easy for user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records.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for the designated record service of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this study proposed the unification of dispersed web pages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designated records consistently. It also suggested a facet based directory service and word cloud service to give access to the contents of each designated record collection. The facet based directory and word cloud service will help users to understand the designated records in more detail.

키워드: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웹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패싯, 워드클라우드

Natioanl Archive of Korea,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m Web Service, Record Service, Facet, Word Cloud

* 이 연구는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록대학원 석사(mj000030000@gmail.com) (제1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shchoi@c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9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12월 1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217-234,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4.217>

1. 서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주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 소장 기록물의 공적 관리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2019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총 12호(15건)의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으며,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전문적 기록관리법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법령 제 20조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지정기록물 제도가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기록 혹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었으나 유출되거나 소실된 기록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공공영역의 결락된 역사보완에 목적을 둔 제한적인 제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07년 개정 공포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대상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 제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분명히 구

분하고, 중요한 민간기록을 국가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김세경 20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거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기존 법령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45조에서는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항을 두어 훼손 혹은 멸실될 위기에 처한 민간기록물을 국가의 영역 하에 두어 관리·보존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 내지 제46조를 비롯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으로 2009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기록물 전시회 등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민간기록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기록물의 조사·발굴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과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러

한 국가기록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 기록물 제도의 운용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활동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며, 미비점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이후 각종 기술적 지원은 물론, 기록관리의 전문적 수행이 취약한 경우를 대비하여 진단과 자문 혹은 교육과 기술 이전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구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장처에 대한 지원형태는 주로 민간기록물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존용품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국가기록원 2007). 국가지정기록물의 정보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수준에는 각 소장처 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며, 몇몇 소장처를 제외하면 기록물 검색 시스템이나 웹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지정기록물의 정보 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최재호 2015).

국가지정기록물의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에 의존하는 제도로서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민간 소장처 수준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활용 계획을 세워 이용자의 접근을 돕거나, 인터넷으로 소장된 기록을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민간 기관의 규모나 서비스 역량에는 격차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기록원에서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서도 지정된 기록물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 내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지정 취지와 의의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중심으로 주

도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 12곳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지정기록물이 서비스 되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민간기록물 메뉴 중 하나인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코너,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웹 콘텐츠 등 국가지정기록물을 관리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웹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된 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서비스는 컬렉션 단위의 제목에 기반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하여 접근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컬렉션 제목 수준의 기록물 접근을 개선하고자, 컬렉션 하위 요소인 철, 건 단위의 기록물을 대표하는 주제어와 컬렉션을 설명한 주제어를 기반으로 패킷 주제 디렉토리 및 패킷별 주요어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여 이용자들이 좀더 구체적인 주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패킷주제 디렉토리는 Ranganathan의 PMEST 범주를 바탕으로 ‘주제’, ‘매체유형’, ‘활동’, ‘장소·배경’, ‘시대’ 등 총 5개로 정의하였다.

2. 국가지정기록물의 개념과 관련 연구

2.1 국가지정기록물 개념

국가지정기록물의 개념은 서론에서 정리하였듯이 제도가 근거하는 법률에 따라서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지정기록물의 보다 정확한 정의를 위해 민간기록 개념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개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록을 발굴하여 흩어지거나 손실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기록관리 분야의 주요 책무이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미 문화재청에서 실시해 온 기록유산의 파악과 수집 등의 제도는 곧 국가지정기록물과 문화재의 중복 지정 문제를 불러왔다(국가기록원 2007).

문화유산 보호제도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인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¹⁾”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록유산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만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로서, 가치 있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망라되는 문화유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김미향 2007).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는 민간기록의 국가적 보호와 관리·지원과 나아가 민간 기록문화의 진흥 등이 핵심적인 취지라는 부분에서 문화재 지정과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지정대상은 민간의 역사

적 사회적 활동과 민간생활상의 재연이라는 생산맥락이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기록물은 공공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수 민간기록물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된다(국가기록원 2007).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 중에서도 민간의 활동과 민간 생활상의 재연이라는 기록의 생산맥락에 방점을 둔 기록물이며, 기록이 담긴 매체의 형태 보다는 기록의 내용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와 구별에 있어서 특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 국가지정기록물관련 연구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한 초창기 연구로, 정은경(2007)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를 기록물 수집의 보완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지정제도의 법률과 제도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지정 대상의 중복 등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와 《독립신문》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록을 대상으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지정 과정에 부딪히게 될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그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희(2008)는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되 장차 국가가 기록물의 소유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민간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기록물의 수집전략으로 보았다.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상의 지정 기준과 지정 대상의 모호함, 지정 후 기록물 관리와 수집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기록물 수집 범위를 기록물 생산 시기로 구체화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적 체제 하에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치평가 기준이나 사후 관리 활용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혜민(2009)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가 국가기록원의 수집 제도가 아닌 독립적인 제도로서 민간기록물의 훼손과 멸실로부터 보호를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여 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인식부재,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 중복 문제, 지정 주체의 문제와 지정이후 관리 대안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선정 기준을 국가지정기록물 심의기준에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고, 지정주체와 가치를 구분 기준으로 유형구분 정립을 시도했으며, 국가기록원의 권한 및 전문성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정 이후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으나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의 열악한 보존시설 문제 언급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최재호(2015)는 국가지정기록물이 단순한 상징적 의미에서 나아가 지식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기록물의 장기적인 관리·활용 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지

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의 소장처에서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활용해 왔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지정이후 기록물의 관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활용의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간의 기록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기록물의 관리·활용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기록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 이연악(2016)은 미국 국립 기록청, 미국 주립 기록보존소, 스코틀랜드 국립 기록보존소의 민간기록물 수집 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의 지정범위와 기준, 관리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제도, 수집, 관리 측면에 대한 연구였으며 실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국가지정기록물에 다양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서비스 현황

3.1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현황

2019년 6월 현재 국가지정기록물은 총 12개의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호는 하나의 기록물 컬렉션을 나타낸다. 먼저 지정된 기록물과 관련하여 후속 지정된 기록물들은 먼저 지정된

기록물의 해당 호에 기호와 숫자를 더하여 '8-1호', '8-2호' 등의 형태로 표시되어 같은 호의 기록물들과 함께 상위의 컬렉션을 이룬다. 예를 들어 '나눔의집'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록물이 2013년 국가지정기록물이 지정되면서 "제8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로 등록되었고, 이후 2014년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8-1호로, 동일한 연도에 '나눔의집'에서 소장한 또 다른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8-2호로 지정되면서 전체 제8호, 제8-1호, 제8-2호의 기록물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상위 컬렉션을 이루었다.

현재 국가지정기록물은 상위 컬렉션 단위인 호 수로는 총 12호까지, 상기 컬렉션을 구성하는 하위 컬렉션 단위인 세부 호까지 포함하면 총 15호의 민간기록물이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는 이를 "12호(15건)"으로 표기하여 세부 호의 기록물에 대한 단위를 '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 계층 상의 용어인 '기록물 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하로 언급되는 '건'은 국가지정기록물의 하위 컬렉션 단위인 세부 호가 아닌 기록물 계층 상의 용어임을 밝힌다.

국가지정기록물 수량 단위가 기록물별로 쪽, 권, 점, 건 등으로 혼재돼있는 상황이지만,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 수량은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가 1점으로 가장 적었고,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이 기록물 15만쪽과 사진기록물 1만9천매로 가장 많았다. 다만 소장처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

물'과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기록물의 경우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수량이 정확하게 파악된 수량이 아니며, 현재 정확한 수량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파악된 기록물의 목록 건수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국가지정기록물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문서, 대장, 필사본, 원고, 서신 등의 일반 문서류와 도서, 신문, 잡지, 기관지 등의 간행물류, 필름과 앨범을 포함한 사진류, 녹음·동영상류, 피복, 상벌, 깃발, 도장, 인쇄 용구를 포함하는 박물류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파악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철·건별 목록을 바탕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유형별 수량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최재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 및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기록정보서비스 및 여타 활용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민간의 소장처에서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에서는 기록물의 소장 환경, 소장처의 규모, 관리 인력, 관리 수준의 차이가 심하여, 개별 소장처에서 독립적으로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최재호 2015).

현행 개별 소장처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서비스는 소장처 간의 편차가 매우 심하며, 소장처의 여건에 따라서 국가지

〈표 1〉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현황

지정	지정 연도	국가지정기록물 제목	소장처	수량	과락된 목록 건수
제1호	2008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고려대학교 박물관	1점	1건
제2호	2008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90점	90건
제3호	제3호	2008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15만쪽	96건
	제3-1호	2013 이승만 대통령 사진기록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19,000매	-
제4호	2013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한글학회(12권), 독립기념관(5권)	17권	17건
제5호	2008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도산기념관	17,000건	63건
제6호	2011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새마을운동중앙회	3,015권	3015건
제7호	2011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	경희대학교 한의학 역사박물관	955권	949건
제8호	제8호	2013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3,060점	9건
	제8-1호	2014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940점	935건
	제8-2호	2014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125점	-
제9호	2014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김정선(상주동학교당)	1,425점	1425건
제10호	2014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심소김천홍 무악예술보존회	2,400점	1463건
제11호	2014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75점	75건
제12호	2013	3.1 독립운동 선언서류	독립기념관	48점	48건

〈표 2〉 국가지정기록물 유형별 수량

기록물 컬렉션	일반 문서류	간행물 도서류	사진 필름류	녹음 동영상류	박물	기타	합계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1	-	-	-	-	-	1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90	-	-	-	-	-	90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96	-	-	-	-	-	96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17	-	-	-	-	-	17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63	-	-	-	-	-	63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1334	229	1091	361	-	-	3015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949	-	-	-	-	-	949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81	9	-	204	650	-	944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20	151	-	-	1253	1	1425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500	333	442	47	141	-	1463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75	-	-	-	-	-	75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	-	-	-	-	-	48
합계	3274	722	1533	612	2044	1	8186

정기록물의 정보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각 소장처 웹 페

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기록정보서비스 수준은 〈표 3〉과 같다.

〈표 3〉 소장처별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수준

기록물명	원문	검색	목록
1. 유진오, 제헌헌법초고	x	○	○
2.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x	○	○
3.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웹 페이지 개선 중, 확인불가)	-	-	-
4.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 일부	○	○
5.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x	x	x
6.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	○	○
7.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x	x	x
8.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x	x	x
9.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x	x	x
10.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	○ 일부	○	○
11.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x	x	x
12. 3.1운동 독립선언서류	○	○	○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형태로는 원문·검색·목록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는 경우, 원문·검색·목록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원문·검색·목록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검색과 목록같은 기초적인 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절반 수준인 6개에 그쳐 기록정보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소장처 간의 서비스 격차를 줄여 일정 수준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2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국가기록원에서는 2016년 개최된 세계기록총회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²⁾를 구축하였다. 현재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개요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12개 호의 기록물 컬렉션의 간략한 소개를 비롯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기록물 271건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정기록물' 메뉴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그쳐 국가지정기록물의 세부목록이나 원문접근, 검색과

2)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 [online]. [cited 2019.6.2].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remark.do>〉.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반면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기록물 소개’ 메뉴에서는 단순 해설뿐만 아니라 목록, 원문접근, 검색 등을 지원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주요기록물 소개’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오인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웹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간략한 소개외에 해당 기록물 컬렉션 이하에 어떤 개별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록물 목록이 제공되지 않으며, 국가지정기록물 소개를 위한 예시 수준으로 개별 기록물 철·건 제목이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렉션 이하의 기록물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4.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안

4.1 패킷 기반 국가지정기록물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국가지정기록물에 어떤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과 주제의 기록물이 있는지 국가지정기록물의 컬렉션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는 현행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웹 서비스로는 컬렉션 이하의 내용과 주제에 접근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 기록물을 5가지 패킷으로 분석하고 각 패킷별로 주제어를 산출하여 주제어 디렉토리로 제공하는 서비스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기록물은 분류하기 위하여 Ranganathan이 창안한 콜론분류(Colon Classification, CC) 즉, 분석합성형 분류에서 다차원적인 개념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Ranganathan이 제시한 PMEST를 적용하였다.

Ranganathan의 기본 패킷 범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철·건별 목록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추출한 용어들은 중복데이터를 제거하고 불용어를 제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432개의 용어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용어들을 분석하여 각 패킷별로 주제어로 할당한 후 패킷별로 하위 주제 범주를 도출하여 주제 디렉토리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주제 디렉토리는 철·건 단위의 용어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컬렉션 제목을 나열한 목록보다는 내용에 기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Ranganathan의 PMEST 범주를 바탕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패킷을 <표 4>와 같이 총 5개로 정의했다. P(Personality)는 가장 명확하거나 중심적인 주제를 이루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관점, 시사점을 아우르는 ‘주제’로 설정했다. M(Matter)는 주제의 물질, 속성, 재질로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의 소재나 재질인 ‘매체유형’으로 정의했다. E(Energy)는 주제와 관련된 처리 과정, 작업, 활동을 뜻하며 국가지정기록물의 생산 원인이

〈표 4〉 Ranganathan의 PMEST 범주와 국가지정기록물에 적용한 5가지 범주

PMEST 범주	정의	국가지정기록물에 적용	국가지정기록물 범주	국가지정기록물 범주 예시
P (Personality) 개성	주제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속성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및 내용	주제	새마을, 독립, 위안부, 사회, 무용, 국악
M (Matter) 물질	인간 생활에서 사용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의 주요 소재 또는 사물의 원재료	국가지정기록물의 매체 유형	매체유형	판결문, 원고, 교과서, 명부, 지도, 사진첩
E (Energy) 활동, 행위	우주의 모든 활동이나 작용, 유형(type), 활동(action), 및 활동과정(process)이나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reference) 등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제 혹은 내용과 관련된 활동, 행위	활동	토의, 처방, 진료, 발표, 공연, 운동
S (Space) 공간	우주의 공간, 국가, 지역	국가지정기록물의 당시 생산 지역, 출처	장소·배경	대한민국, 대구, 광병원, 하와이, 일본, 미국
T (Time) 시간	시대구분의 연도, 월, 일	국가지정기록물의 생산 연도	시대	1890년~2011년

나 생산 행위와 관련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S(Space)는 주제의 지리적 장소와 관련된 범주로, 기록물의 생산당시의 지리적 내용을 표현하는 ‘장소·배경’으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T(Time)는 기록물의 생산연도인 ‘시대’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따른다.

이와 같이 패킷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을 접근하게 하였을 경우 다양한 요소와 관점을 표현하고 주제별, 매체유형별, 활동별, 장소·배경별, 시대별 등 학제적인 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산출한 주제어를 각 패킷별로 디렉토리로 제공하여 컬렉션 수준으로만 제공되던 기존 국가지정기록물 내용에서 나아가 기록물 세부 철·건 수준의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국가지정기록물 내용 파악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철, 건 단위로 도출된 용어를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생성된 각 패킷에 할당된 용어를 분석

하여 세부주제를 분석하여 생성한 각 패킷의 디렉토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1 주제 디렉토리

주제 디렉토리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훈령 제15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시의 심의기준 중 기록물의 수록 내용에 관한 평가 항목을 ‘정치’, ‘경제’, ‘인물’, ‘단체’, ‘사건 및 이슈’, ‘사회상’, ‘학문 및 과학기술’, ‘문학 예술’, ‘연예·대중오락’, ‘스포츠’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참조하여 대주제 범주를 구성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 목록에서 추출한 용어에 해당하는 대주제는 정치·행정, 경제, 인물, 단체, 학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대주제 범주는 다시 중주제로 분할될 수 있었다. 국가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주제는 정치·행정 범주에서는 법제, 선

거, 정부, 외교로 분할되었으며 경제 범주에서는 금융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그림 1〉 참조).

인물 범주는 정치, 종교, 예술, 의료, 독립운동가, 인권운동가등 총 6개의 중주제 범주로 다시 세분화되었으며 단체는 정치, 종교, 예술, 의료, 기업, 언론, 재외한인등 총 7개의 중주제범주로 나뉘었다. 학문 범주는 언어, 의학, 예술, 종교, 교육, 사건·이슈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지정기록물에 해당되는 주제를 귀납적으로 표현하여 디렉토리로 제시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국가 지정기록물이 어떠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전체 주제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패킷의 5개 대주제범주와 대주제범주에 속하는 중주제범주아래 다시 세부적인 주제로 분화시켜 디렉토리를 개발하였는데 최하위 범주에 속하는 소주제범주는 〈표 5〉와 같다.

4.1.2 매체유형 디렉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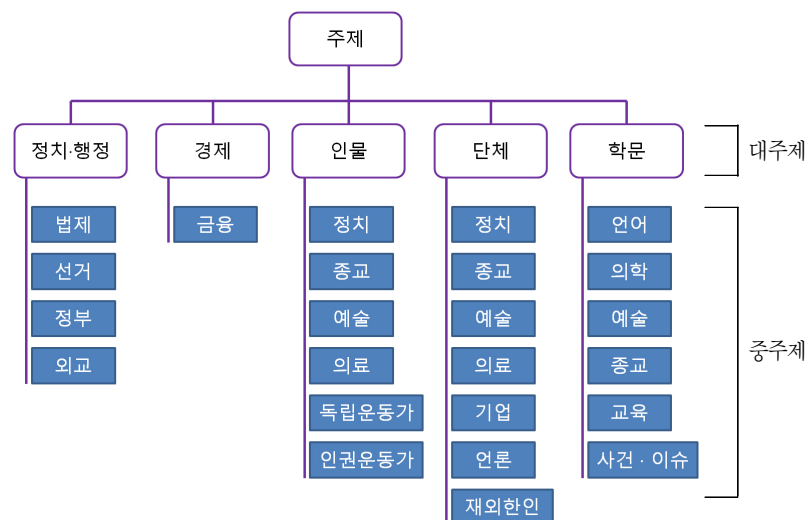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기술요소는 기록물을 실

제 정리할 때 쓰이므로 모든 기술 요소를 패킷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패킷으로 구성되었을 때 검색에 유용한 요소를 차용하는 방향으로 기록물의 매체 유형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반영하여 ‘매체유형’ 패킷에는 일반문서류·대장, 도서·간행물,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박물, 도면, 웹자원의 7개 하위 범주로구성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4.1.3 활동 디렉토리

활동은 주제와 관련된 처리과정, 작업, 행위, 활동을 포함하는 범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생산자인 혹은 기록물 생산자의 활동과 관련된다. 주제 디렉토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나 활동으로 주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기록물에 대한 주요한 접근점이 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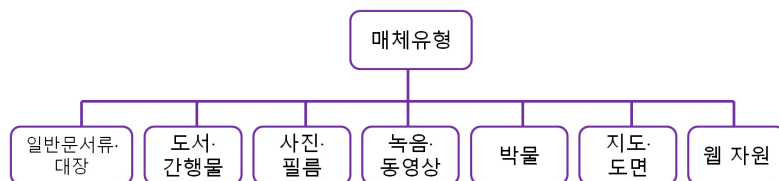
활동 패킷을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공고한 해당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사유, 각각의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연구 분석을 통



〈그림 1〉 주제디렉토리: 대주제와 중주제

〈표 5〉 주제 디렉토리 - 주제범주 체계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정치·행정	법제	헌법	단체	정치	
		법령		종교	
	선거			예술	
	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료	
		미군정기		기업	
		대한민국 제1공화국		언론	
	외교	조약·협정		재외한인	
		UN		독립운동	
		북미	학문	언어	국어
		동아시아			영어
		유럽			기타
		기타		의학	
경제	금융	증권		예술	무용
		은행			음악
					미술
인물	정치			종교	기독교
	종교	기독교			동학
		동학		교육	
	예술				
	의료			사전·이슈	
	독립운동가				
	인권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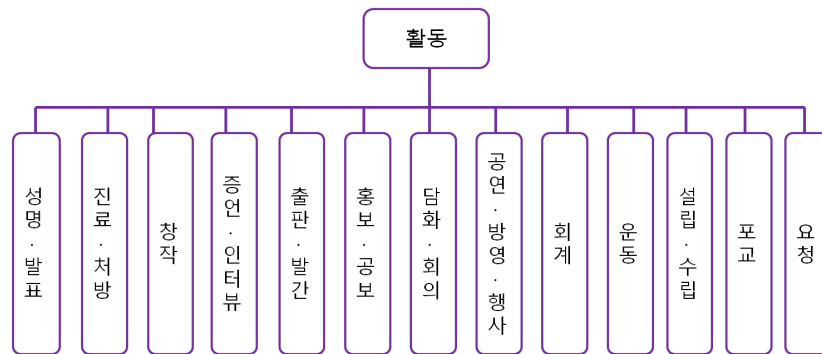
〈그림 2〉 매체유형 디렉토리 범주

해 국가지정기록물 개개의 내용과 개념을 파악하고, 국가지정기록물의 목록을 통해 수집된 용어를 그룹화 하는 귀납적 방식을 통해 하위 범주를 도출했다. 활동 패킷과 관련된 하위 범주로 성명·발표, 진료·처방, 창작, 증언·인터뷰, 출판·발간, 홍보·공보, 담화·회의, 공연·방영·행사, 회계, 운동, 설립·수립, 포교, 요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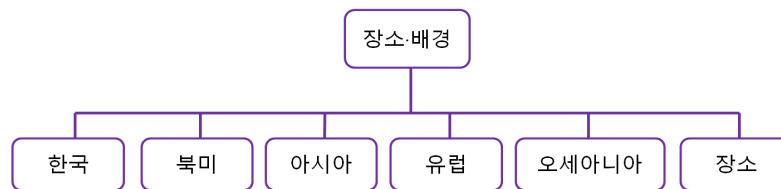
13개 범주를 구성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4.1.4 장소·배경 디렉토리

장소·배경에 관한 패킷은 지리적인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며, 국가지정기록물의 생산당시의 지리적인 맥락을 나타낸다. 국가지정기록물



〈그림 3〉 활동 디렉토리 범주



〈그림 4〉 장소·배경 디렉토리

목록에서 도출한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지리적 공간에 대한 용어를 귀납적 방식을 통해 범주화하여 〈그림 4〉와 같이 한국, 북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장소의 6개 상위 범주를 구성했다.

장소·배경의 하위범주는 다시 세부적인 장소로 분화시켜 디렉토리를 개발하였는데 한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지역을 포함하며, 광역시·도별 지역 구성인 '서울',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함경북도', '평양'의 15개 지역을 최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국외의 경우 한국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아 북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로 지정학적, 문화적 구분에 따른 대륙의 범위로 범주화했다.

북미의 경우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를 하위 범주로 구성하여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분류되도록 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이란', '터키', '버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10개 국가를 최하위 범주로 포함한다.

유럽은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의 6개 하위 범주를 두어 유럽지역과 관련된 기록물이 포함되며, 오세아니아의 경우 '호주'와 '태평양'의 하위범주를 가진다.

장소는 기록물이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장소에 관련된 경우 특정 장소를 포함하는 범주로 '경복궁', '경복대', '경상대학교', '고하분교', '곽병원', '국립중앙박물관', '금강산', '금산사', '김포공항', '대광양로원', '대한천일은행', '덕수궁', '도봉산', '링크센터', '백악관', '비슬문화촌', '서

울공향',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원대학교', '창경궁', '하와이대학교', '히로시마대학교'의 24개 최하위 범주를 가진다.

4.1.5 시대 디렉토리 서비스

시대는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된 날짜와 시간을 대상으로 디렉토리화 한 것으로 기록물의 생산연도에 해당한다. 시대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시기는 국가지정기록물 목록의 기록물 생산연도를 바탕으로 도출되며 이때 생산연도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특정 시기와 특정 연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도를 기반으로 나열하였다. 즉, 기록물과 관련된 연도를 추출하여 연도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국가지정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1890년에 생산된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이며 이에 대한 시대는 1890년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생산된 기록물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로 2011년³⁾에 생산된 것으로 2011년이 시대 디렉토리의 항목으로 배정되었다.

4.2 패킷 기반 국가지정기록물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패킷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류된 주제를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한다. 각 용어의 출현빈도에 따른 비중을 시각화 하여 표현하는 워드 클라우드 서비

스는 현행 컬렉션 단위의 국가지정기록물 정보 제공 서비스처럼 단순 기록물 목록만 나열하는 형태보다 한층 더 직관적으로 기록물의 내용과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지정기록물의 철·건별 단위까지 접근하여 용어를 추출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패킷은 주제, 활동, 장소 등이며 매체유형과 시대 패킷을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만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 못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생성하지 않았다.

4.2.1 주제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국가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도출된 주제어 중 주제 디렉토리에 포함되는 주제어의 출현빈도 상위 100개를 산출하여 <그림 5>와 같이 주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새마을’, ‘지도



<그림 5> 주제 워드 클라우드

3)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기록물 소장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두 곳이며, 이 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한곳의 기록물 목록만 구할 수 있었다. 즉,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소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목록만 포함한 국가지정기록물 목록 중에서 가장 최근의 기록물 생산연도가 2011년이다.

자', '교육'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할머니, 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록물의 내용들이 시각화되어 제공됨으로써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지정기록물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2.2 활동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국가지정기록물 목록에서 활동 디렉토리로 도출된 용어 중 출현빈도 상위 100개를 시각화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국가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된 주요 활동이 토의, 발표, 진료, 처방 등의 단어로 가시화되어 나타냄으로써 국가지정기록물의 생산 원인 혹은 기록물의 생산자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6> 활동 디렉토리의 주요 주제어

4.2.3 장소·배경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국가지정기록물 목록에서 출현한 지역에 대하여 출현빈도를 기반으로 상위 100개의 용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그림 7>과 같다. '대한민국', '하와이' 등의 국가명과 지명이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한천

일은행', '곽병원' 등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기록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국가지정기록물과 관련된 주요 장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림 7> 장소·배경 디렉토리의 주요 주제어

5. 결 론

국가기록원은 2016년 국가 차원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를 구축하여, 웹을 기반으로 한 국가지정기록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등의 소개와 각 국가지정기록물 컬렉션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한 해설 페이지등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서비스에 대한 미비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의 특성상 국

가지정기록물의 정보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수준에는 각 소장처 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록정보서비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웹 페이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의 웹 기반 정보 서비스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이끌어어나가는 국가지정기록물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서비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지정기록물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안했다. 국가지정기록물을 다각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anganathan의 PMEST 범주를 바탕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의 내용을 '주제', '매체유형', '활동', '장소·배경', '시대'의 5가지 디렉토리로 개발하여 이용자의 국가지정기록물 내용 접근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현재 컬렉션 제목 수준으로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철, 건 단위에서 추출한 단어와 내용 설명에서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로 '주제' 분류를 하고 '활동', '장소·배경' 등 이용자가 기록

물에 접근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접근점을 디렉토리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록물의 접근서비스를 확장하였다.

둘째, 국가지정기록물의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국가지정기록물 디렉토리에서 주제 618개, 매체유형 412개, 활동 177개, 장소·배경 274개의 총 1,481개 주제 키워드를 추출했으며, 이 중에서 주제, 활동, 장소·배경 디렉토리의 용어를 출현빈도 상위 100개로 선별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각 디렉토리별로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국가지정기록물의 내용과 주제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웹 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패킷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이용자에게 풍부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지정기록물의 철·건 수준까지 접근하여 국가지정기록물 목록을 수집하고 용어를 추출하여, 현행 컬렉션 단위의 국가지정기록물 정보제공 서비스 수준보다 한층 더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기록물의 내용과 주제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지정기록물의 활용을 도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 지정기록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확장하여 기록물의 원문을 제공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원문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에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향. 2007.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기록인』, 1: 54-55.
- 김세경. 2007.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남경희. 2008. 『국가지정기록물의 수집 관리 전략』.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언약. 2016.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비판적 검토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정은경. 2007. 『국가지정기록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 조혜민. 2009. 『국가지정기록물제도의 현황과 전문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 최재호. 2015.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개요. [online]. [cited 2019.6.2].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archiveIntro.do>〉.
-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현황. [online]. [cited 2019.6.2].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tate.do>〉.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이하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 [online]. [cited 2019.6.2].
〈<http://theme.archives.go.kr/next/onlineGallery/paperOffirstPresident.do>〉.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이하 민간기록물 관련 코너. [online]. [cited 2019.6.2].
〈<http://www.archives.go.kr/next/data/nationalArchiveStatePopup.do?code=03>〉:
〈<http://www.archives.go.kr/next/data/nationalArchiveStatePopup.do?code=03-01>〉.
- 국가기록원. 2007. 『국가지정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지정대상 조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지정기록물 웹페이지. [online]. [cited 2019.6.2].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remark.do>〉.
- 국가지정기록물 제3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해설. [online]. [cited 2019.6.2].
〈<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2.do>〉.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0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4613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ae Ho. 2015. *A Study on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hung, Eun Kyung. 2007. *The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M.A.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o, Hye-Min.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and Specialization*. M.A. thesis. Wonkwang University
- Kim, Se Kyung. 2007. *The Transition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in Korea*. M.A.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Eon-yag. 2016. *A Critical Review of National Designated Records: The Cases of Foreig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Nam, Kyoung-hee. 2008. *Acquisition and Management Strategy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